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7호 【누계 제25360호】 주제 105 (2016)년 8월 4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 쟁취운동열성자대회가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적  
당군의 불패의 위용을 만방  
에 떨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  
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  
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군에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  
의 불길을 지펴주신 20년  
이 되는 뜻깊은 해에 소집  
된 이번 대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군업적  
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근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기치높이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  
부대로 튼튼히 준비시키  
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다.

8월 2일과 3일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오중흙 7련대칭호  
쟁취운동열성자대회 이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산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근대중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분석총화되었으며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는 력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전군에 대중운동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데서 나서는 파급과 방도들이 토의되  
었다.

대회에는 각급 부대들에서 오중흙  
7련대칭호와 근위칭호, 3대혁명붉은기  
를 쟁취한 단위의 모범적인 지휘성원  
들과 군인들, 근대중운동발전에 기여한  
공로있는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장인 4.25분회회관은 무척  
수령감사용위정신, 열렬한 김정은동지



황병서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를 비롯한 조선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대중  
운동에서 모범적인 일꾼들,  
군인들이 주석단에 자리잡  
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목표를 향한  
전인민적투쟁군을 힘있게  
번리며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를 끊임  
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  
쟁취운동열성자대회를  
진행하게 된대 대하여 언급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  
운동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의 당군건설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우리 혁명무력  
의 고귀한 유산이며 군력  
강화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는 조국의 최전방에서 당과 혁명, 시대  
가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고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  
로 강화하는데 공헌한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경례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중시하시고 이끌어오신  
근대중운동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결심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주의로 심장의 피를 편편 끓이는 사상  
과 신념의 지인, 천적간첩의 성세, 방패  
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해갈 전체 참가자들의 드  
높은 혁명적열정으로 용암마냥 끓어번  
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결사용위정신  
이 백동치는 오중흙 7련대기발과 무적  
의 최정예혁명강군의 현대적인 무장장  
비불, 《결사용위》라는 글발이 형성된  
주석단배경에는 오중흙 7련대영예회장

모형과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  
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  
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  
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  
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  
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련대로, 전화의

근위부대로 만들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원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  
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철저적인  
예지와 비범한 명도, 태양의 열과 정으  
로 주체적근대중운동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시  
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리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는 조국의 최전방에서 당과 혁명, 시대  
가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고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  
로 강화하는데 공헌한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경례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중시하시고 이끌어오신  
근대중운동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결심이라고 강조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가 진행되었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이후 인민군대의 첫 대회로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를 소집한 목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대중운동 사상과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련대로, 전화의 근위부대로 만들어 인민군대를 앞세워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는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기치놀이 인민군대를 당과 혁명보위의 결정체로 만들어 군력강화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의 개최를 선언하시였다.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 이후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들의 대회합을 제일먼저 마련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애국헌신의 결정체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세기 90년대중엽 혁명발전의 요구를 길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5(1996)년 1월 1일 인민군대앞에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벌릴데 대한 전략적인 모션을 제시하시고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이 운동의 본질과 목적, 기본요구와 방도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수많은 부대, 구분대

들을 찾으시여 대중운동의 불길을 지펴 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중운동 중시사상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을 군력강화의 최선의 방도로 내세우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력있게 벌여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운동을 인민군대 군사정치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이 운동의 체제안에서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을 항일의 7련대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당과 혁명을 결사보위하는 천적만적의 천연요새로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벌려나가도록 조직 령도하시였다.

당의 혼련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대중운동의 불길속에서 전쟁환경에 접근한 실천전선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대중운동을 통하여 전군에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도록 하시고 군인생활개선의 목표와 기준을 밝혀주시여 대중운동이 명실공히 군인대중을 위한 운동으로 진행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땅위에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우실 확고한 신조를 지니시고 인민군대가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놀이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였다.

그는 지난 기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군대중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적군대중운동을 창조하시고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락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군대중운동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말을 드리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에 맞게 오중흙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활력있게 벌려 조국수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만리마정신, 만리마속도가 다계단으로 창조창출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3 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가 진행되었다



## 2 번 에서 계속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백두산혁명강군건설의 만능의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군력강화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국통일과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총공격, 총대진합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김승철, 지영춘, 로홍세, 최창국, 박대상, 변영부, 한광호, 황근일, 군관들인 박용암, 승철, 홍철근, 김길선, 왕현철, 안철민, 김봉수, 최동철, 허광철, 한호석, 서항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대중운동의 불길속에 당과 혁명을 결사보위한 참된 영웅전사들과 총독관용사들이 수없이 배출되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이 창조되었다고 말하였다.

역사의 준엄한 돌풍속에서도 인민군대 군사정치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나고 군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펼쳐지게 된것은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모두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총독관용사들로 억세게 키우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배방으로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강력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군대중운동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 전군을 당과 혁명을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오중흙 7련대로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이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당의 참된 선군혁명투사들로 키우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인민군대앞에는 정치군사적위력을 배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정신을 보위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은 당군건설의 총로선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은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당군건설의 총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인민군대가 당군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당과 혁명보위의 전풍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항일의 오중흙 7련대의 니뿔소리가 전군에 힘있게 메아리치게 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지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전군이 항일의 7련대, 전회의 근위부대가 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사상강화, 도덕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군건설과 군관들에서 사상을 앞세우고 사상의 위력으로 오직 승리만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사상과 도덕을 원동력으로 혁명적당군을 건설하려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회의 요구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인민군대를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당의 명군체계가 튼튼히 선 신념과 도덕의리의 전위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모든 부대들을 당중앙의 드라카 잇달은 천원요새로 만들며 일꾼들과 군인들을 당을 따라 선군혁명전진관리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부대안에 당의 명령일화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명령, 지시를 결사판철하는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수행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판철하는 진짜배기혁명가, 열렬한 조국애, 투철한 반체제급의식, 공산주의도덕관을 지닌 신념과 도덕의 최강자, 창조적 거인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군인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로 만드는데 사상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전군에 혁명적인 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싸움준비완성에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는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인민군대에서 훈련의 실천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일꾼들과 군인들을 우리 당의 군사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 전쟁환경에 접근된 실용적실동훈련, 실용적투뇌훈련을 강도높이 벌리고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성적인 전투동원상태를 유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강철같은 규율은 인민군대의 생명이 라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리방법을 구현하여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철저히 갖추며 군인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오중흙 7련대칭호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운동을 다같이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오중흙 7련대칭호를 쟁취한 부대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힘을 넣어 이 운동의 성과가 3대혁명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의 세계안에서 근위부대운동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운동에서 기본은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물질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라고 지적하시었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군부대들이 특출한 공훈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결사옹위, 결사판철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이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도 근위병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군인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전군이 1970년대와 같은 대중운동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꾼들과 군인들에게 이 운동의 본질과 목적,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누구나 대중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데 대한 문제, 따라왔사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에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이 휘몰아치게 할데 대한 문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한 문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펼친 주체혁명위업의 웅대한 실계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은 하늘을 찌를듯이 높고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끝없이 광명한 미래가 펼쳐져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번 대회는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에서 근본적전환을 일으켜 전군을 당 제 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총진군, 총동원대회로 주체의 건군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당군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인민군대가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두다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에 한결같이 열쳐나 만리마시며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을 창조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의 건군사

에 특기할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들의 대회합을 마련해주시고 군대중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무정갓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대회참가자들이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한몫이 그대로 밭불이 되고 봉화가 되어 전군에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대중운동사상과 업적이 있고 주체의 대중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명도가 있기에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의 날은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력기, 총대진하여 당과 혁명보위의 새 력사를 써나가는데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기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의 폐회를 선언하시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리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장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지어주시며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흙 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군대중운동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전추만대에 빛내이며 전군에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곳곳이 이어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역적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피사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여러 나라 대통령들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김정은 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당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전체 민주 불공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에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쌍무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시니의 의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각하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조 제 프 까 빌 라 까 방 게  
2016년 7월 15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김정은 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각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접하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림으로써 각하의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위원장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막 키 사 말  
2016년 7월 28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김정은 각하

위원장각하  
나는 각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불공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나의 의지를 표명하는바입니다.  
각하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각하께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고공화국 대통령**  
메 니 싸 우 느 게 쏘  
2016년 7월 28일

# 동해포구에 새겨진 위대한 사랑의 자욱

동해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원산수산물사업소에는 수산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기울이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그 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곳 수산물사업소에 오셔서 남긴 사적내용도 있다.  
잊지 못할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얼마전 우리는 원산수산물사업소를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걸음도 빠지지 않고 달려오셨다.》  
수십년간 원산수산물사업소를 현직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영상이 숭엄히 안겨져있다.  
혁명사적교양실에서 우리는 원산에서 살고있는 김희희로인을 만날수 있었다. 알고보니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영광을 지닌 당시의 원산수산물가공공장 기사장이었다.  
로인은 자기의 한평생 영리한 잇을 수 없는 날이 생각날때면 여기 혁명사적교양실에 자주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손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이곳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영적을 새 세대로에게 전하여 할 사업과의 무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강증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었다.  
혁사의 그날은 주제 54 (1965)년 5월 12일이었다. 당시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오신 부두에는 물고기를 잡는 원산수산물사업소와 물고기를 가공하는 원산수산물가공공장이 있었다.  
원산수산물사업소와 원산수산물가공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를 받는 영광으로 하여 끝없이 설레이었다. 온 하루 강연도현지도의 길에 계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퍼로도 후실 사이없이 오후가 다 지나가는무렵 이곳을 찾으시었다.  
저녁의 해빛이 파도를 물들이는 동해바다의 전경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감회는 참으로 깊으셨다.  
주제 36 (1947)년 9월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시였던 그날이 생생히 활짝오시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이곳 수산물사업소와 수산물가공공장의 심해를 료해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었다.  
민도 부두봉사장을 돌아보시는데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산물가공공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절업직장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여기에서는 명치절업작업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녀성로동자들이 명치를 독에 차곡차곡 올려 소름을 치고는 독의 아귀를 채운 손으로 덮고 가는 새끼줄로 동여매서 일꾼을 다그치고있었다.  
그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안색은 점차 흐려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을 돌리시며 물고기를 깨끗하고 맛있게 가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보낼 제품인데 모양도 잘하여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었다.  
그이의 뜻밖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꾼들은 녀성로동자들이 하는 절업작업모습을 다시한번 눈여겨보게 되었다.  
절업작업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깨끗한 환경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으며 독에 덮은 물이 않아서 인차 씻어질수 있어 독을 토양하는에서도 부족점이 느껴졌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물고기를 손으로 가공하는것은 비위생적이고, 수산물가공부문에서도 기술혁명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수산물을 깨끗하고 맛있게 가공할수 있다고 차근차근 일깨워 주시었다.  
일꾼들이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보아왔던 절업작업이었다.  
자기들은 절업직장에 많이 나와보았으나 녀성로동자들의 손로동을 기계화한 생각을 과연 배본적이 있었던가.

# 고귀한 지침, 영원한 생명선

**당 사업의 주인**  
어느날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일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확고하고 솔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권을 일으키고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면 모든 당일꾼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분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당일꾼들은 우리 당의 핵심적 팔미당 사업의 주인이다. 우리 당의 존망과 당사업의 성패가 당일꾼들에게 달려있다. 당일꾼들은 언제나 높은 사업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뛰고 또 뛰어야 한다. ...  
그 다음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당정치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진강화하여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고 하시면서 올해에는 반드시 전환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선전일꾼들은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여기고 일상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교양하는 리상적인 당선전일꾼이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었다.  
**대교조의 불길과 송풍기**  
주제 98(2009)년 3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자신에서 최근 중요공강, 기업소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현이 현지도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불길은 나라에 타면지도록 하였는데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그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고 불수 있게 송풍기의 역할을 잘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용광로에 송풍기로 바람을 불려야 불길이 세차게 타고 뜨거워지는것처럼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이 군대와 인민의 기세를 더

# 병사의 심장은 인민을 위해 고동친다

라선시 선봉지구 만복동지역의 도로와 불길을 새롭게 정리보수해준 조선인민군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았다!  
이것을 언제나 심장의 구호, 애국의 구호로 간직할 인민군인민들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투쟁은 이 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이어졌다.  
원수들의 총구가 노리는 철리방산소들을 물론 내 조국의 푸르든 산과 들, 공원과 우편지, 거리와 마을에도 자기들의 손질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미더운 인민군인민들!  
얼마전에도 인민군인민들은 미제와 남조선피뢰침의 정경도 밟쳐들고 정경에 극도로 긴장한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행동과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전화위복의 기적으로 일떠세 라선시 선봉지구 만복동지역의 도로와 불길을 새롭게 정리보수해 주어 만사함을 감동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장병들은 자기 부모 형제들을 위하고 자기 집들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선봉지구 만복동에 사는 은복마을을 막기 위한 도로와 불길정리보수작업을 하루빨리 완결짓는것을 인민군인민들의 절기모임이 있었다. 구분대별 사회주의경쟁요장이 발표되고 전투장 곳곳에 혁명적인정신과 기상이 힘있게 역발치는 50여명의 구조와 표어, 직관선전물들

자전거에 몸을 실고있는 팔자지를 눈 함아니도 없다는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되었다.  
조국보위투소에서 몸바쳐 싸운 영예군인들을 자기의 위자처럼 극진히 사랑하고 배려하며 오랜 세월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이어온 평양의 할미아들!  
그 유다른 표양생들이 바로 중국역 천화 1동 49인원이다. 대동강구역 육류3동 54인원반에서 사는 조영옥, 김부선로인 불이다.  
7년전 5월 어느날 말한 영예군인요양소에서 치료받고있는 레단군 팔만리 특류영예군인 박은철동무에게 뜻밖의 낯모름 두로인이 찾아왔다.  
알고보니 로인들도 치료 받으며 온 표양생들이었다.  
군사임무수행중에 상한 영예군인의 다리를 어루만지며 막심하고 치료를 잡아먹어 꼭 밀어서야 한다고 따듯이 위로하며 보약과 영양식품까지 인겨 주는 할머니들에서 작은형동무는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후 로인들은 작은형동무의 병치료를 좋은 치료방법이 있다거나 유용한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너로 한 몸으로 수심리검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영예군인이 입맛을 잃을세라 매일같이 마음을 썼다.  
어느날인가 작은형동무가 심하게 앓을 때에는 한숨두숨 미음도 더넣어주며 머리



삼지연못가에 어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송고함 뜻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답사자들



